

<한국어 신어 의미 형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정예은)에 대한 토론문

소신애(이화여대)

이 논문은 어휘의 '문화 맥락 의미(α)'의 형성 양상을 2010년대 국립국어원 신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문화 맥락 의미(α)'의 형성 기제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분류하고, '문화 맥락 의미(α)'의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권의 20~3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 는 '행위 및 상태'로, 문화특수적 α 는 '참여자나 환경'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 는 '물리적·경험적 특성'으로, 문화특수적 α 는 '추상적·관념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어에 내포된 문화 맥락 의미의 형성 기제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신어의 의미 형성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문화 맥락 의미(α)'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은 신어의 '의미 해석'은 설명할 수 있으나 '의미 형성'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6)의 '역변'에서 '뛰어났던 외모가'가 환유적으로 형성되고, (7)의 '개딸'에서 '괄괄한'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선택된 이유를 '해당 의미들은 두 구성성분이 결합할 때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해당 신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에 한해서는 유효할 것이나, 해당 신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화자들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신어들 대부분은 한국의 청년층 화자들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신어의 의미 형성 원인을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세대'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이에 '관습적으로 선택된 지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어의 의미 형성에 작용하는 문화 맥락에 '세대' 변인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신어의 '의미 형성'의 기원으로서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근본적으로 '현대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3. 이 논문에서는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 는 주로 '행위 및 상태'로, 문화특수적 α 는 '참여자나 환경'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α 가 '행위 및 상태'에 해당하는 '빚투'는 실험 결과 오히려 문화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를 고려할 때, 실제로 α 의 유형과 문화보편성 및 문화특수성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본문에서도 α 의 문화특수성에는 다른 변인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α 의 문화특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4. 이 논문에서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 는 ‘물리적·경험적 특성’으로, 문화특수적 α 는 ‘추상적·관념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α 가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두부멘탈’은 실험 결과 오히려 문화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α 의 문화특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러한 반례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